

은빛 바다에 오름...아! 가을이네

제주 오름 가을 역사 장관

제주

먼 옛날 친구인 역사와 달뿌리 풀, 갈대 셋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길을 떠났다. 서로 춤을 추며 가다보니 어느새 산마루. 산마루에는 바람이 세어 달뿌리풀과 갈대는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잎이 뿌리쪽에 나 있는 역사는 견딜 만했다.

역사는 "와, 시원하고 경치가 좋네. 사방이 탁 트여 한눈에 보이니 난 여기 살래"하면서 그 곳에 자리를 잡았다.

달뿌리풀과 갈대는 "우린 추워서 산 위는 싫어. 낮은 곳으로 갈 테야" 하고는 역사와 헤어져 산 아래로 내려가다 가을을 만났다.

때마침 물 위에 비친 달에 반한 달뿌리풀은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달그림자를 보면서 살 거야." 하고 그 곳에 뿌리를 내렸다.

갈대가 가을가를 둘러보더니, 둘이 살기엔 좁다며 달뿌리풀과 작별하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만 바다에 막혀 더 갈 수 없게 되자 갈대는 강가에 자리 잡았다.

역사는 강인함의 상징이다. 그 어떤 농작물이나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거친 곳에서도 역사는 뿌리는 내리고 잘 자란다. 제주의 중산간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역사는 척박한 제주의 상징이다.

가을이면 제주의 산야는 역사의 은빛물결로 장관을 이룬다. 제주를 은빛으로 물들인 역사의 물결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111년 만에 기록적인 무더위를 기록했던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가을이다. 이 가을 역사의 은빛물결에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맡겨 재충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가을 역사구경하기 좋은 몇 곳을 소개한다. <새별오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대표적인 역사 명소다. 물론 입장료는 없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제주들불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가을이면 산체 전면이 은빛 물결로 일렁이며 장관을 연출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평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그 어느 곳에서도 차량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도로에서 보는 오름 전체를 뒤덮은 은빛 역사와 유연한 능선과 파란 가을 하늘, 보는 이로 하여금

남녀노소 부담없는 새별오름·따라비오름·정물오름 굼부리 둘레 2km 산굼부리 난·온대식물 군락 볼거리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어른 키보다 큰 역사 숲 사이로 탐방로가 잘 조성돼 있어 남녀노소 어렵지 않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등산에서 하산까지의 시간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정상에서 서 있으면 마치 은빛 바다 위에 떠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멀리 한라산을 비롯해 주변의 많은 오름과 비양도, 차귀도, 제주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해질 무렵에는 비양도 뒤로 넘어가는 일몰도 감동적이다.

고려 공민왕 23년(1374년)에 목호(牧胡-제주 목마장을 관리하는 몽골 관리)의 난이 일어나자, 최영 장군이 토벌군을 이끌고 한림을 명월포에 상륙, 이곳 새별오름에 진영을 구축해 목호군을 섬멸하기도 했던 곳이다.

<따라비오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자리한 따라비오름은 '오름의 여왕'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 오름 역시 가을이면 오름 전체가 역사의 은빛물결이 출렁인다.

제주 오름은 굼부리가 하나 있는 원뿔형이거나 한 쪽으로 터진 말굽형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따라비오름은 3개의 굼부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봉우리가 매끄러운 등성으로 연결되어 한 산체를 이루며 이곳에서 역사가 가을 햇살과 바람에 은빛 물결을 이룬다.

산체 좌우 탐방로에 나무 계단과 야자수매트가 설치돼 있고 정상까지의 소요시간도 20분 남짓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대록산(大鹿山-큰사슴이오름)> 따라비오름이 웃한 곳에 대록산이 있다. 이 오름 탐방로 주변 역시 역사 물결이다.

특히 정상을 향하는 탐방로보다는 오름에 오르기 전, 오름 주변 수 만개의 드넓은 대지는 가을이면 그야말로 은빛바다를 이룬다.

드넓게 펼쳐진 역사 평원에 햇살이 쏟아지면 눈이 부실정도의 장관이 펼쳐진다. 굳이 힘들게 오름을 오르지 않아도 역사 장관을 감상하기에 그만이다.

따라비오름과 대록산은 '갈마장길'이라 불리는 산책로와 연결돼 있어 두 곳의 역사 장관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산굼부리> 제주 역사 하면 관광객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소가 바로 산굼부리일 것이다.

산굼부리는 다른 오름들에 비해 높지도는 않고 산세도 험하지 않지만 대형 굼부리를 지닌 오름이다. 마치 몸뚱이는 없고 아가리만 있는 기이한 기생 화산이다.

굼부리의 둘레는 무려 2km에, 그 깊이는 132m에 달한다.

역사 하나로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의 명소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역사를 감상할 수 있다.

산체 전체가 역사물결을 이루고 역사 숲 사이로 탐방로가 있어 마치 구름 사이를 지나는 느낌이며, 정상에서는 구름 위에서 서 있는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이다.

산굼부리는 1979년 6월 천연기념물 제263호로 지정돼 있다.

역사 풍경도 장관이지만 분화구 내부에는 일사량과 외부와의 온도 차이 등으로 난대식물과 온대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마보기오름·정물오름> 제주도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산록도로 링크스 골프장 인근의 마보기오름도 역사 명소다.

산록도로변 링크스 골프장 인근에 '마보기오름'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20여 분 오르면 주변 전체가 역사의 은빛물결에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또 이곳에서는 한라산과 산방산, 단산, 가파도, 마라도 등 제주 서부의 풍경이 손에 잡힐 듯하다.

한림읍 금악리의 정물오름도 역사 풍광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인공미가 없는 자연미가 일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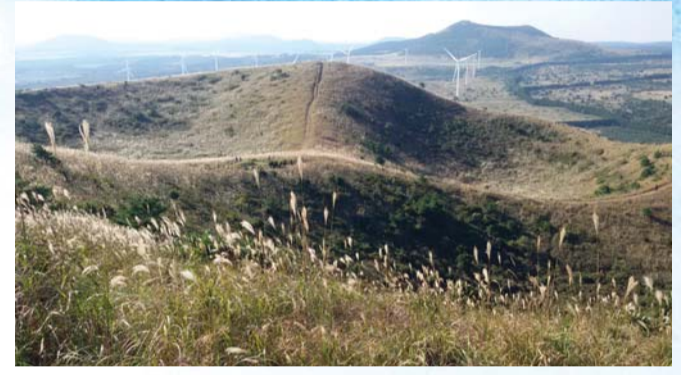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약 20분. 오르는 동안 약간의 역사를 볼 수 있지만 정상 뒤편 산 전체가 역사 물결이다.

정상 능선에서 뒤편 산체로 내려가기가 힘들다면 오름을 오르지 않고 오름 주위를 돌아 뒤편으로 가면 어렵지 않게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제주신보 조준욱 기자 mwcho@jeju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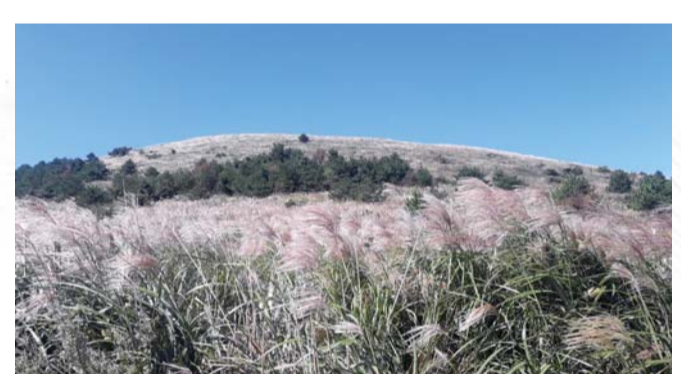
새별오름



따라비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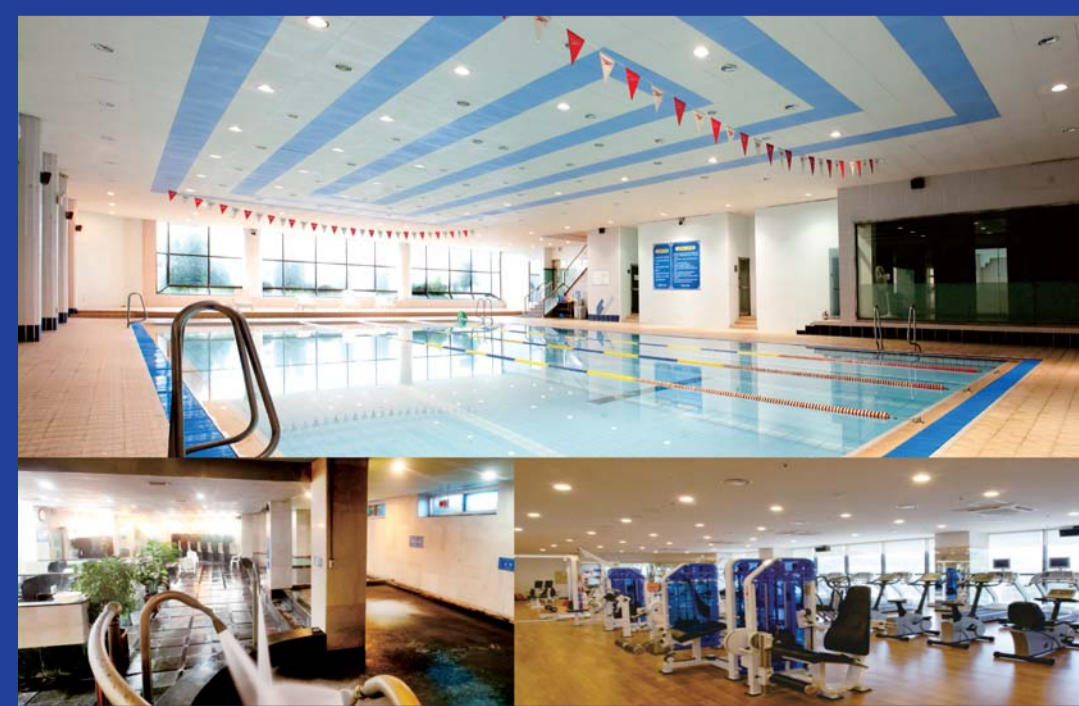
산굼부리



정물오름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 釜山日報 제주新보

新韓道日報는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 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 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 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